

제424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4월24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1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 마. 해양경찰청 소관

(17시03분 개의)

○위원장 어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09986)

-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나. 해양수산부 소관
- 다. 농촌진흥청 소관
-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17시04분)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윤준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세입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658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7388억 3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소관 기관별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하여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2239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 원자재 및 비료 가격의 상승,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 등에 따라 영농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372억 3000만 원을, 시설농가 면세유유가 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예산으로 118억 9300만 원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보전 예산으로 828억 8100만 원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으로 400억 원을 각각 신규 반영하였고 산불로 농기계가 전소된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하여 농기계임대 사업에 4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소관에 대하여 세입추가경정 예산안은 3658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1855억 44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무단 철골 구조물 설치에 대한 비례대응을 위하여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사업에 605억 원을 증액하였고 양식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에 60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업인들의 산불피해 지원을 위하여 어망·어구 지원사업에 11억 4000만 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반면 세입예산안 중 여수세계박람회 정부 선투자금을 상환하는 부분은 투자금 상환에 따른 박람회장 활성화 지역 소지 등을 감안하여 3658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밖에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청 소관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307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자체 임차헬기 지원 사업에 106억 4800만 원,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보급하기 위한 지자체 다목적진화차 사업에 54억 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운영하기 위한 지자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사업에 59억 2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81억 5700만 원을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 소각행위에 따른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52억 8200만 원을,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관리 능력 향상 및 중대재해 예방지원의 전국 시범적용을 위한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 예산으로 28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33억 8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해양경찰병원 건립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 대형헬기의 중부권 도입을 위한 1차 연도 사업비 66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윤준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희 지금 농촌에 보면요, 각종 정책자금이나 이런 것 대출받았는데 이 분들이 산불이 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대출자금의 상환을 유예하든가 내지는 또 이자를 조금 감면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든가 이런 요구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업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지 않을까.....

○윤준병 위원 있어요, 있어요. 들어 있어요.

○임미애 위원 그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어느 정도 들어 있는데요? 그것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게 저희 이차보전 예산이 따로 있고요. 그 안에서 옮겨서 쓰는 걸로 기재부하고 다 정리가 됐고 대신에 다른 이차보전 예산을 우리가 더 증액을 한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 자금들 유예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 것은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차보전 예산에서 쓰는 걸로 돼 있고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임미애 위원 이게 그러면 따로 추경 증액으로 잡히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그래서 다른 이차보전 예산 증액을 지금 저희가 많이 시킨 겁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산림청장님, 산림종합자금 관련해서도 종합자금 받은 분들이, 임업인들이 이것 상황 유예를 요구하고 이차보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지금 그것 협의 중이고요. 여기 추경안에도 400억 정도 추가로 지금……

○**임미애 위원** 400억이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임미애 위원** 그것 갖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산림청장 임상섭** 유예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자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런 요구가 이번 추경에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만약에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기준비된 예산으로 이게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주시는 거지요?

○**산림청장 임상섭**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충분히 소통이 됐습니까?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입니다.

해수부장관님, 오늘 뉴스를 보니까 외신에 보면 ‘해상에 구조물을 만들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쓰던 수단이다’, 우리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구조물도 현상변경 시도의 하나로 장래에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 23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 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외신에서는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금은 다행스러운 게 지금 600억 지원을, 증액을 해 놓았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조경태 위원** 그런데 중국은 지금 산란 1·2기를 만들고 그 옆에 또 구조물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례 대응이 가능한 액수인지 묻고 싶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우선은 지금 양식장 두 기가 들어와 있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보조시설 한 기가 있는데요. 지금 아마 중국 항만에 한 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식시설로요. 아마 이번 회담에서 추가적인 설치를 지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경태 위원** 장관님, 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그 두 기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타당성조사에서 어떤 것을 넣을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넣었을 때는 한 기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산란이 아니라 선란 1호, 선란 2호입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선란입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국회 지금 상임위지 않습니까? 본회의

에서 이 예산을 지켜 내야 된다고 보는데 해수부에서는 지켜 낼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노력하셔야 되고 이것은 정말 우리 영토를 지켜 내는 일이기 때문에 예산 당국에도 아마 해수부에서 간접하게 이야기하면 이 예산은 지켜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장관님 계실 때 비례 대응을 통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한 그런 해수부장관으로 영원히, 자리를 이렇게 지켰다 이런 느낌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 그래서 예산이 본 예결위에서 깨이지 않도록 감액되지 않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는 1100억을 요구를 했지만 그래도 그 절반 정도인 600억 정도가 반영이 됐다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중국이든 어떤 나라든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한 침략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느껴진다면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하나만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위원장 어기구** 질의 한 분에 한 번 있는데, 기회가……

○**임미애 위원** 윤준병 위원님 것 빼서 제가 할게요. 그래도 되지요?

○**윤준병 위원** 예.

○**위원장 어기구** 예, 알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임미애 위원** 장관님, 이것 지금 확인해 보니까 농업자금 이차보전이요 청년농의 경우하고 비RPC 벼 매입자금에 관해서는 이차보전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축단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환 유예하고 이차보전에 관해서는 이게 논의가 안 됐다고 하거든요, 아까 소위에서 논의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소위에서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기존 예산에 저희들 이차보전 예산이 있고 거기서 주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의 진행이 다 돼 있고……

○**임미애 위원** 축단협에서 요구하는 사료구매자금 상환 유예하고 그다음에 이차보전하고, 정확하게 하면 축단협의 요구요. 그러니까 한우협회가 아니고 축단협, 다시 말하면 다른 축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 안 들어가 있는데 논의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건 빼는 건 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오전에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예산을 추가로 넣어도 50% 이상이 예산 집행이 되기 전에 다 상환을 해 버려서 그러면 그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그전에 미리

상환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요. 저도 이런 자금들을 써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상환기일이 다가오니까 상환을 어떻게 하냐 하면 다른 데서 일단 넣어 놔서 한 다음에 다시 대출을 받아서 그것을 갚아 주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것 아실 텐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예.

○**임미애 위원** 그러다 보니 설사 상환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상환 여력이 나아져서 상환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환 유예하고 그다음에 이차보전하는 금액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렇게 되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위원님, 그렇다고 해서 사료구매자금이 아닌 다른 자금을 저희가 상환 유예를 할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임미애 위원** 그렇지요. 사료구매자금에 한해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런데 사료구매자금은 다 갚아 버렸으면 그분들은 반영을 해도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자금을 빌려 가지고 갚았다 하더라도.

○**임미애 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로 상환이 됐다 그러면 상환 여력이 되어서 상환을 한 거기 때문에 상환 여력이 되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게 절반 정도가 됩니다.

○**임미애 위원** 상환 여력이 돼서 상환을 한 경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인 거고 상환기일이 도래하고 있는데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만기가 도래해서 상환한 게 5월 달까지 하게 되면 절반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절반 이상은 다 갚아 버린 건데 나머지 사람만 혜택을 주게 되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임미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형평성을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환기일이라는 것은 날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상환을 해야 돼요. 내가 돈이 있어서 상환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다른 빚을 뀌 와서라도 상환을 하고 다시 대출을 내야 되는 게 이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상환을 하고 대출을 다시 받은 사람한테는 지금 추가로 소급해서 혜택을 또 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임미애 위원** 아니아니, 이것 추가가 아니고 이것은 다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이 상태로 두면 대출받은 사람들이 다시 대출받아서 상환기일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상환기일 도래해서 혜택받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있는 거니까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렇게 하게 되면 앞에서 미리 상환해 버린 사람들은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테니까 오히려 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 위원** 아니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또 산불이 나고 이러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어기구** 자, 이제 정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러니까 산불하고 관련되는 것은 따로 저희들이 해 드리니까요. 산불 피해 보신 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른 트랙으로 해 드리니까 그건 문제가 없게 할 거고요.

○**임미애 위원** 산불 나서 그러면서 다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워낙 사로잡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닌데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상환한 사람들이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그런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시 상환을 받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그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대출을 받는, 피해 보신 분들한테 대해서는……

○**위원장 어기구** 정리하시지요, 이것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임미애 위원** 이게 아마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논의가 됐고요. 아까 제가 수용……

○**송옥주 위원** 차관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까처럼.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어기구**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돼서 정부 측에서 수용 곤란으로 이렇게 아마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임미애 위원**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상환기일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상환기일이 도래하면 다들 상환합니다. 왜냐하면 상환기일을 어길 수 없으니까. 그런데 상환하는 방식이 다른 빚을 내서 상환을 하고 또다시 대출을 받아서 냈던 빚을 갚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다들 사료구매자금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환기일 연기하는 것을 상환기일 도래해서 상환한 사람들한테는 이미 이 사람들이 50%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고 나머지 50%한테만 혜택이 돌아가니까 불공평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걸 안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그 뒤에 이 사람들도 또 1년 뒤나 2년 뒤 되면 또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인식할 축산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정부 측 입장 말씀해 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정부로서는 그것은 지금 수용하기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산불 피해로 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리고, 다른 루트로 해서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산불 피해 보신 분들 다른 자금을 또 용자를 해서 받아 가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신보에 대해서까지 저희들이 완전보증으로, 100%로 바꿔드렸고 보증수수료도 낮추는 걸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산불 피해 보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그러면 이 정도 하시지요. 더 추가 논의는 계속 결론이 안 날 것 같습

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증액된 사항 등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께서 동의 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농촌진흥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산림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다음은 해양경찰청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정부 측의 동의가 있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농림축산식품부 3건, 해양수산부 3건, 산림청 11건을 첨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의 자구와 금액 등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소위원회 윤준병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등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부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주신 예산 결산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남은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최대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앞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원회 윤준병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해양수산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염려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한편 의결해 주신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권재한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소위 윤준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을 꼼꼼히 챙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섭 산림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임상섭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제1회 산림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정부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까지 수정 보완해 주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윤준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결위의 심의 과정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용진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윤준병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각별한 애정으로 2025년도 제1회 해양경찰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중액 의결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토대로 1만 3000 해양경찰 전 직원이 합심하여 우리 바다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의견은 해양경찰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어기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 예결위에서 잘 방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박덕흠 서삼석 서천호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병진
이양수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정희용 조경태

○첨가 위원(1인)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임재금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차관 박범수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차관 송명달
농촌진흥청
청장 권재한
산림청
청장 임상섭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

【보고사항】

○의안 회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8.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8.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8)

이상 2건 4월 21일 회부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7)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22.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025. 4. 22.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4)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2025. 4. 23. 정희용 의원 등 12인 발의)(의안번호 2210076)

이상 6건 4월 2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4. 18.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4)

4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